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광복 80
빛나는 알결음, 새로운 길

보도	2025.8.25.(월) 14:00	배포	2025.8.25.(월)
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투자검사2국 IT검사팀	책임자	국 장	이현덕	(02-3145-7690)
		담당자	팀 장	이정운	(02-3145-7615)

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안전성, 투자자 보호의 시작입니다.

- 금융감독원, 「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」 워크숍 개최 -

- 주요 내용 -

- 금융감독원은 '25.8.25.(월) 증권사 등이 참여하는 「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」 워크숍을 개최하였음
 - 동 워크숍에는 금융감독원, 증권사 담당 임직원(CIO 등), 유관기관(금투협회, 금보원)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
- 이번 워크숍은 자본시장 내 전산사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 예방과 시장 불안·불신을 해소하기 위해
 - 금감원과 업계가 함께 거래 안전성 강화방안과 주요 이슈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
- 금감원은 「자본시장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방안」을 설명하고, 투자자 피해로 직결되는 전산사고를 예방·감축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하였으며,
 - 업계(증권사)·유관기관(금보원)에서는 IT내부통제 개선사례, 전자금융사고 예방 대책, 사이버 위협 동향 등을 발표하였음

워크숍 개요

- ☑ 일 시: '25.8.25.(월) 14:00 ~ 16:30
- ☑ 장 소: 금융감독원 2층 강당
- ☑ 참석자: 증권사 담당 임직원(CIO, 감사부서장 등) 및 유관기관(금투협회, 금보원) 관계자 약 150명

I. 워크숍 주요 내용

1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 모두 발언

-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산사고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 사항을 당부
- ① **(전사적 대응)** 반복되는 전산사고는 투자자 보호 실패, 증권사 평판 리스크 확대, 자본시장 불신을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
 -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CEO 등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전사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
- ② **(내부통제 강화)**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IT내부통제 체계 구축·운영을 통해 전산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필요
- ③ **(협업·소통 강화)** 금융당국은 상시감시 강화, 자율시정체계 활성화, 적시검사 실시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으며,
 - 동 대응체계의 효과적 이행과 거래 안전성 확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업계와 당국간 유기적인 협업 필요성을 강조

2 워크숍 주요 발표 내용

1 금융감독원 주례 발표

- 「자본시장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*」

* ① 전자금융사고 현황 ②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안전성 강화 방안

2 업계 및 유관기관 주례 발표

- ① 「IT내부통제 개선사례」 ② 「전자금융사고 예방 대책」
- ③ 「금융권 사이버 위협 동향 및 대응방안」

1. 금융투자부문 전자금융사고 현황

- 최근 금투부문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 추이, 특징 및 주요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를 설명
 - **(현황)** 최근 5년간('20~'24년) 증권사에서 총 429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, 매년 발생건수도 증가 추세('20년 66건→'24년 100건)
 - 특히, '25년 상반기중 다수의 전산사고(58건)가 연이어 발생하여 투자자 등의 불안·불신이 높아진 상황
- ※ 최근 5년간 금융권 전자금융사고 피해액(294.6억원) 중 금투부문(증권사)이 대부분(262.5억원, 89%)을 차지 ☞ 사고발생 시 매매체결 지연·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로 직결
- **(특징)** 대형사(자기자본 상위 10사)에서 다수의 전산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, 온라인·리테일 중심 증권사의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
 - 사고는 주로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가운데 외부요인(해외 브로커의 시스템 장애 등)에 의한 사고발생 또한 증가 추세

2.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안전성 강화방안

- 거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전산장애, IT내부통제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안전성 강화방안을 발표
 - **(리스크 요인)** 금투부문의 전자금융사고 현황, 검사·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대규모 전산장애 등 주요 리스크 요인*을 선정
 - * ① 대규모 전산장애 ② IT내부통제 미흡 ③ 고위험군(온라인·리테일 중심 증권사) ④ 사고예방·비상대응 미흡 ⑤ 신용정보 보호 ⑥ 전금법 미적용 회사
 - **(강화방안)** 리스크 그룹·요인별로 맞춤형 대응수단(Policy Mix)을 적용하여 전자금융사고 예방·통제 및 적시대응 실효성 제고 예정
 - * ① 상시감시 강화 ② 신속 정보수집·공유 ③ IT감사 가이드라인 안착 ④ 자율시정체계 활성화 ⑤ 고위험사 집중관리 ⑥ 적시검사 및 엄정한 제재 ⑦ 소통 및 교육 강화

발표②·③·④ | 내부통제, 예방대책, 사이버위협 동향(증권사·유관기관)

- KB·메리츠증권은 IT내부통제 개선 및 전산장애 감축·예방 대책 사례를 공유하고, 금보원은 정보보안 사고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
 - **(내부통제 개선)** 거래 인프라 관련 관리적·기술적 측면의 IT내부통제 개선(조직·인력 확충, 프로그램 테스트·성능관리 개선 등)을 통한 거래 안전성 제고 사례 공유
 - **(사고 예방대책)** 자체 '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TF'를 통해 마련한 전사 전자금융사고 예방 대책(중장기 IT예산 확보, 조직관리 체계 정비 등)을 발표
 - **(사이버위협 동향)**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주요 침해사고 사례 등 사이버 위협 동향, 사고예방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유의사항 등을 안내

II. 향후 계획

- 금번 워크숍은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확보가 투자자 보호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로서
 - 주요 리스크 요인, 위규 및 모범사례, 종합 대응방향 등에 대한 논의 및 이해도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및 업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업계는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워크숍·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

※ [별첨1] 서재완 부원장보 모두 발언 1부.

[별첨2]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방안 1부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붙임 1**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워크숍 프로그램**

시 간	진행 순서
13:30 ~ 14:00 (30분)	상호교류
14:00	워크숍 개회
14:00 ~ 14:05 (5분)	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모두 발언
14:05 ~ 14:35 (30분)	전사 IT 내부통제체계 현황 및 개선사례
14:35 ~ 15:05 (30분)	전자금융사고 예방 대책 및 실행계획
15:05 ~ 15:30 (25분)	휴식
15:30 ~ 16:00 (30분)	자본시장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방안
16:00 ~ 16:30 (30분)	최근 사이버 위협 동향 및 대응방안

1 프로그램 오류 (전산장애)

☞ A사는 매매체결 프로그램(MTS 등) 변경 시 테스트, 성능관리 및 제3자 검증 등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운영하여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잔존된 상태로 운영 시스템에 반영하여 거래 중단 사고 발생

2 시스템 및 설비 장애 (전산장애)

☞ B사는 대규모 이벤트(기업공개(IPO) 등)에 대비한 성능테스트가 미흡한 상태에서 고객 접속 폭주시 시스템 성능부족에 따른 매매체결 프로그램(MTS) 장애가 발생하여 거래주문이 대규모로 미체결

3 외부요인 장애 (전산장애)

☞ C사는 해외주식 브로커의 전산장애로 주문거부가 발생하였음에도 대체 브로커로의 전환을 위한 비상대응 절차를 미흡하게 운영하여 다수의 해외 주식 주문처리가 중단

4 악성 프로그램(랜섬웨어) 감염 (정보유출 및 업무중단)

☞ D사는 해킹 등으로 업무용 서버에 보관된 데이터가 악성프로그램(랜섬웨어)에 의해 감염 및 암호화되어 접근·활용이 불가능해지는 등 업무중단 사고 발생

5 매매체결 프로그램 변경 오류 (정보유출)

☞ E사는 매매체결 프로그램(MTS 등)을 변경하면서 중요 처리절차(로직)를 누락하고, 충분한 테스트 없이 서비스를 개시하여 특정 고객들의 개인 신용정보가 타 고객에게 노출

6 책임자 승인절차 누락 등에 의한 정보유출 (정보유출)

☞ F사는 외주직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자료반출에 대한 책임자 승인 절차를 누락하는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외주직원이 다수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외부로 유출